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5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6.12~2025.06.18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6
	▪ 중국	
	- 《중비 경제무역 지수 보고서(2025)》 전 세계 최초 발표,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심층 협력 추진	6
	- 《라이브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 사회 공개 의견 수렴	6
	- 7개 부처,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7
	- 자연자원부, 2025년 도시 국토 공간 모니터링 시작	8
	- 인간형 로봇 산업, 실용화로 진화	8
	- 전국 통합 전력 시장 건설 가속화	9
	- 희토류 신소재 산업 응용 다각화	9
	- 여러 지역, 특별 행동 방안 발표하여 문화 관광 시장 활성화	10
	- 상무부: 추가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시장 접근 완화	10
	- 랴오닝,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융합 발전 가속화 추진	11
	▪ 일본	
	- 이바라키현,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사업장당 최대 50만엔 지급	11
	- 주부전력, 물 채우지 않고 벼 재배... 탈탄소 쌀 사업화 목표	12
	- 디지털 지역 화폐,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유통... 행정 서비스에도 활용	12

– 홋카이도 루스츠무라, 숙박세 정액제로 전환 예정	13
– 삿포로 시장, 수소 활용 협의회 설립으로 "삿포로가 모델 될 것"	13
– 도쿄 에너지, 구마모토에서 바이오 가스 발전... 오니 및 식품 잔사로 전기 생산	14
– 야모리, 지자체와 빈집 재생 확대... 하코다테시와 연계	14
– 야마구치현 하기사, 전체 학교 80%가 '이주자 자녀'... 노령화된 마을에 열정으로 유치	15
– 도쿄도, 육아 지원 '양에서 질'로... 효과 검증 필수	15
■ 미얀마	
– 미얀마와 중국,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16
■ 베트남	
– 베트남, EU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	16
– 베트남 총리, 프랑스와 관계 강화 논의	17
■ 캄보디아	
– 캄보디아, UN 해양회의서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의지 표명	17
■ 태국	
– 태국,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추진	18
– 태국, 시암시와 자국 대형 언어 모델 개발 추진	18
■ 필리핀	
– 필리핀, 2025년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률 2위 달성 전망	19
– 필리핀, 3,30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 경매 추진	19
–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감소세 지속	20

- **라오스**

- 라오스, 시장 강화 및 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 발표 20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 발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지수 보고서(2025)'가 발표되어 양측의 협력 심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데이터 및 의사결정의 강력한 근거 마련
- ✓ 중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라이브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라이브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의견 수렴 초안)'이 발표, 라이브 플랫폼, 운영자, 마케팅 담당자 등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 ✓ 공업 정보화부 등 7개 부처가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실행 방안'을 공동 발표하여 2027년까지 중점 식품 기업의 경영 관리 디지털화 보급률 80% 달성 및 스마트 공장 육성 목표 제시
- ✓ 자연자원부 판공청은 전국 지급(地級) 및 이상 도시에서 2025년 도시 국토 공간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여 도시 국토 공간 관리에서 공공 서비스, 생활 편의성, 교통 편리성, 안전 및 회복력 등 상황에 중점적으로 초점
- ✓ 2025 국제 인간형 로봇 기술 대회와 'CMG 세계 로봇 대회 시리즈전'이 개최되고, 화중과학기술대학 당한 교수팀의 '징추' 인간형 로봇 양산이 시작되는 등 인간형 로봇 산업이 실용화 단계로 진화
- ✓ 중국 통합 전력 시장은 전국 통합 대시장의 중요한 부분이자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전력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핵심 지원책으로, 6월 1일부터 신규 가동되는 신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시장 참여 의무화
- ✓ 네이멍구 바오테우시가 독특한 희토류 자원 이점을 활용하여 희토류 영구 자석 재료 및 기능성 재료 등 중하류 약점 보완을 가속화하며 희토류 신소재 산업 응용을 다각화

- ✓ 광저우시가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저우시 소비 진작 특별 행동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문화 관광 소비 공급 최적화, 혁신적인 소비 시나리오 창출 및 입국 소비 확대를 중점 추진
- ✓ 상무부가 올해 '외국인 투자 안정화 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사업 추진 및 국가급 개방 플랫폼 활용을 통해 외국인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계획
- ✓ 2025 랴오닝성 고품질 문화 체육 관광 융합 발전 대회가 차오양에서 개최되어 랴오닝성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 가속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일본

- ✓ 이바라키현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접수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직원의 시급을 35엔 이상 인상한 사업장에 최대 50만엔 지급
- ✓ 주부전력이 아이치현 신사에서 눈에 물을 채우지 않고 뽀시를 직접 뿌려 버를 재배하는 실증 실험을 공개하며 노동 비용 60% 절감 및 메탄가스 80% 감축 효과 기대
- ✓ 스마트폰이나 IC 카드 등을 이용하는 디지털 지역 화폐 도입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라, 닛케이글로벌 설문 결과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디지털 지역 화폐가 유통 중
- ✓ 홋카이도 루스츠무라가 2026년 4월부터 징수할 숙박세에 대해 단계적 정액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숙박 사업자의 징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홋카이도와 동일한 방식 채택
- ✓ 전력 설비 공사 기업인 도쿄 에네시스가 구마모토현에서 하수 오니 및 식품 잔사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발전소 건설을 발표하

며 2029년 가동 목표

- ✓ 빈집 재생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야모리(도쿄 시부야)가 홋카이도 하코다테 시의 제3섹터와 공동 출자 회사를 설립하여 지방 빈집 재생 사업을 확대
- ✓ 삿포로시가 홋카이도 내 금융기관, 에너지 회사, 토요타 자동차 등 약 40개 기업 및 단체와 수소 활용을 추진하는 협의회를 설립하여 도내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공급망 구축 목표
- ✓ 야마구치현 하기시의 산간 지역인 사사나미 지구에서 이주자 유치를 통해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가 활기를 되찾고, 전교생의 80%가 이주자 자녀로 구성
- ✓ 도쿄도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며, 보육료 무상화 확대 및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선택지 지원

○ 미얀마

- ✓ 우 코 코 르윈 미얀마 에너지부 장관과 마 지아 주미안마 중국 대사가 네 피도에서 에너지 협력 방안 및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프로젝트를 논의

○ 베트남

- ✓ 팜 밍 쩡 베트남 총리가 프랑스 니스에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베트남-EU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 ✓ 팜 밍 쩡 베트남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입법 교류 확대 및 의회 협력을 촉진

○ 캄보디아

- ✓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제3차 UN 해양회의에서 해양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회복력 강화에 대한 캄보디아의 의지를 표명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 태국

- ✓ 태국 전자 거래 개발청(ETDA)이 소비자 보호 및 책임 있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발표
- ✓ 태국 국립 과학 기술 개발청(NSTDA)이 태국의 AI 기업 시암AI와 협력하여 태국의 AI 역량 강화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태국형 대형 언어 모델(LLM) 개발에 착수

○ 필리핀

- ✓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7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5.3% 성장률 예측
- ✓ 필리핀 에너지부가 3,300 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공급하는 제5차 녹색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5)을 개시하며 고정식 해상 풍력 기술 중점 추진
- ✓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2025년 3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했다고 발표하여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라오스

- ✓ 말라이퉁 코마시트 라오스 산업상공부 장관이 시장 접근성 확대, 국내 생산 촉진,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한 지역 한 상품' 정책 추진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비 경제무역 지수 보고서(2025)》 전 세계 최초 발표,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심층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최초로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 발전 추세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지수 보고서(2025)’가 제4회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박람회에서 발표됨. 이는 중-아프리카 협력 심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데이터 및 의사결정의 강력한 근거 마련 - 최근 몇 년간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은 16년 연속 아프리카 최대 무역 파트너 국가 지위 유지. 이 보고서는 종합 발전, 균형 발전, 산업, 지역 지수 등 ‘4위 일체’의 입체적 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대외 직접 투자 등 전반적인 분야 포괄 - 2005년 11.723이었던 중-아프리카 경제무역 종합 발전 지수는 2021년 69.118로 상승. 특히, 무역 품질, 활력, 규모, 잠재력 지수 모두 크게 향상되었으며, 균형 발전 지수 또한 2009년 35.379에서 2021년 54.978로 개선되어 협력의 조화성 및 불균형 손실 감소 ○ 《라이브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 사회 공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과 협력하여 소비자 및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라이브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라이브 전자상거래 감독 관리 방법(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하고 사회 의견 수렴 시작. 이는 플랫폼, 운영자, 마케팅 담당자 등 각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 본 방법은 라이브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미국	<p>세분화하여 규정. 위반 처리, 자격 확인, 정보 보고, 교육 시스템, 등급별 관리, 동적 통제, 정보 공시 등의 책임을 명시하며, 플랫폼 협약 규칙을 확립하고 불법 행위 처리를 강화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협력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브룸 운영자, 라이브 마케팅 서비스 기관, 라이브 마케팅 담당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적 선전을 금지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발표 심사, 정보 공시, 신분 확인 등 제도 확립 요구. 또한, 마케팅 담당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소개 의무
	<p>○ 7개 부처,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 정보화부, 교육부, 인력 자원 사회 보장부 등 7개 부처가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실행 방안'을 공동 발표. 2027년까지 중점 식품 기업의 경영 관리 디지털화 보급률 80% 달성, 규모 이상 식품 기업의 핵심 공정 수치 제어율 및 디지털 연구 개발 도구 보급률 75% 달성 목표 설정 - 2027년까지 10개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육성하고, 5개 이상의 고표준 디지털 단지 건설, 그리고 고수준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업체 육성 계획. 2030년까지는 신세대 정보 기술이 규모 이상 식품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보급되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식품 산업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육성 목표 제시 -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정보 기술 혁신 응용, 신모델 신업태 육성, 산업 품질 향상 및 업그레이드, 기반 강화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주요 행동을 전개하고 18가지 구체적인 조치 마련. 유제품, 양조, 정제차 등 세분화된 분야에 대한 분류 지도를 강화하여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자연자원부, 2025년 도시 국토 공간 모니터링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부 판공청은 최근 통지를 통해 전국 지급(地級) 및 이상 도시에서 2025년 도시 국토 공간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이는 도시 국토 공간 관리에서 공공 서비스, 생활 편의성, 교통 편리성, 안전 및 회복력 등 상황에 중점적으로 초점 - 2024년도 국토 변경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도 도시 국토 공간 모니터링 성과를 바탕으로 작업 진행. 올해 6월 말까지의 고해상도 원격 탐사 영상 및 최신 관련 전문 자료, 그리고 현지 조사를 결합하여 도시 국토 공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작업은 토지 이용 현황을 근거로 모니터링 요소의 공간 위치, 점유 범위, 면적(길이), 관련 속성 등을 확정하고, 변화 상황 및 관련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보완. 새로 추가된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 건설 총량, 토지 이용 구조, 인프라 및 서비스 기능 등 상황 파악
	<p>○ 인간형 로봇 산업, 실용화로 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국제 인간형 로봇 기술 대회와 'CMG 세계 로봇 대회 시리즈 전' 기갑 격투 경기 개최. 화중과학기술대학 당한 교수팀이 개발한 '징추' 인간형 로봇의 양산 시작.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중국은 90만 개에 가까운 로봇 관련 기업 보유 - 인간형 로봇의 전시 시나리오가 '걷고 뛰는' 멋진 모습에서 가정 응용, 상업 서비스 등으로 전면 업그레이드되어 '실용화 도구'로 진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2025 국제 인간형 로봇 기술 대회에서는 산업, 가정, 상업 등 28개 시나리오에 걸쳐 60개 이상의 팀이 참가 - 중국 각지에서 인간형 로봇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 중이며, 정책적 지원도 지속. 항저우 위항구는 로봇 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로봇 산업 15조'를 발표. 베이징은 1000억 위안 규모의 정부 투자 기금을 설립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 지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전국 통합 전력 시장 건설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통합 전력 시장은 전국 통합 대시장의 중요한 부분이자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전력 자원 배치를 최적화하는 핵심적인 지원책. 6월 1일부터 신규 가동되는 신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하며, 가격은 시장 결정으로 변화 - 신에너지의 전면적인 시장 참여는 지역 장벽을 허물고 성간(省間) 및 지역간 거래 규모 확대를 촉진하며, 전력 자원의 전국적 최적 배치를 유리하게 만들면서 전력 시장 건설 작업이 더욱 가속화. 새로운 전력 시스템 개혁 이후, 전력 시장 건설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되어 다원적 경쟁 체제 형성 - 전력 시장은 '공급 보장, 전환 촉진, 가격 안정' 역할을 더욱 발휘하여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 2024년 전국 성간 및 지역간 시장화 거래 전력량은 1조 4천억 킬로와트시로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p>○ 희토류 신소재 산업 응용 다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가전제품의 영구 자석 모터, 휴대폰 카메라의 줌 모터, 생물 조명, 의료 진단 등 다양한 제품에 희토류 원소가 포함. 희토류는 특별한 원자 구조로 인해 풍부한 자기, 광, 전기 특성을 가지며,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하고 기능적인 신형 재료 구성 - 중국의 '희토류 수도'인 네이멍구 바오터우시는 독특한 자원적 이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유치, 시장 확대, 희토류 영구 자석 재료 및 기능성 재료 등 중하류 약점 보완을 가속화. 바오터우에 위치한 진리영구자석(바오터우)과학기술유한공사는 전 세계 단일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희토류 영구 자석 재료 생산 현장 보유 - 희토류는 광기능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변신을 보여줌. 발광은 희토류 화합물의 광, 전기, 자기 세 가지 기능 중 가장 두드러진 기능. 바오터우시는 희토류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 이점을 바탕으로 전국 최대의 희토류 신소재 기지를 형성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여러 지역, 특별 행동 방안 발표하여 문화 관광 시장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저우시 상무국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소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저우시 소비 진작 특별 행동 실행 방안(의견 수렴 초안)'을 발표. 이는 문화 관광 소비 공급 최적화, 문화 시설 및 관광 자원 활용, 혁신적인 소비 시나리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안 - 광저우시는 '미식 여행', '공연 여행' 등 다양한 문화 관광 활동 개최를 지원. 또한, 입국 소비 확대를 위해 240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시행, 통관 편의 서비스 수준 향상, 출국 시 면세점 확대 및 즉시 환급 서비스 추진, 외국인 카드 POS기 보급률 확대 등 추진 - 여러 지역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연계 조치 발표. 특히 문화 관광 분야의 여러 조치가 포함. 예를 들어, 칭더시는 '문화 관광+스포츠', '문화 관광+농업' 등 다양한 융합 관광 상품을 제안. 상하이시는 '문화 관광 상업 체육 전시'의 심층 융합을 추진 <p>○ 상무부: 추가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시장 접근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안정화 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155개 시범 과제 제시. 국가 급 경제 기술 개발구, 자유 무역 시험구 등 개방 플랫폼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 조치를 마련하여 외국인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 -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칭다오에서 제6회 다국적 기업 지도자 칭다오 정상회의 개최. '다국적 기업과 중국 - 세계 연결, 협력과 상생'을 주제로 다양한 포럼과 활동 진행 예정. 이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는 긍정적 신호 전달 - 상무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생명 공학, 독자 병원 등 분야의 개방 시범 사업을 가속화하고, 기타 서비스 분야의 자율적 개방을 질서 있게 확대할 계획. 또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개정 및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의 국내 재투자 장려 정책을 연구하여 외국인 기업에 더 많은 투자 기회 제공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랴오닝, 문화 체육 관광 산업 융합 발전 가속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랴오닝성 고품질 문화 체육 관광 융합 발전 대회 추천 행사가 차오양에서 개최. 2023년, 2024년에 선양, 다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랴오닝성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 - 랴오닝성은 고품질 문화 체육 관광 융합 발전 시범지 조성을 목표로, 문화 체육 관광의 더욱 심층적인 융합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은 랴오닝의 전면적인 부흥을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부상 - 이번 대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랴오닝성 문화 체육 관광 산업 특별 투자 유치 행사가 14일 개최. 온천, 호텔, 빙설 산업 등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 유치 추진 진행. 현장에서 15개 프로젝트가 계약을 체결하여 73억 1천8백만 위안의 의향 계약 금액 달성
일본	<p>○ 이바라키현,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사업장당 최대 50만엔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라키현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접수 시작.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1인당 시급 1010엔 이하였던 직원의 시급을 35엔 이상 인상한 현대 중소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당 최대 50만엔 지급 -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보급 및 정착시켜 지역 경제 발전과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정규직 직원 1인당 5만엔, 비정규직 직원 1인당 3만엔 지급. 신청 시 사업장 전체의 시급이 1040엔 이상이어야 하며, 인상된 임금 수준을 1년간 유지하는 것이 조건 - 기업 외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개인 사업자 등도 신청 가능. 현은 약 2000개 사업장에 지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주부전력, 물 채우지 않고 벼 재배... 탈탄소 쌀 사업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부전력은 아이치현 신시에서 논에 물을 채우지 않고 벼씨를 직접 뿌려 벼를 재배하는 실증 실험 공개. 육묘 및 모내기, 물 관리 등 노동 비용을 60% 절감할 수 있으며,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80% 줄일 수 있다는 이점 - 주부전력은 논의 잡초 생육 억제 로봇 개발 및 농작물 생산 지원 등을 하는 스타트업 NEWGREEN에 출자. 이 회사와 협력하여 아이치현, 미에현, 나가노현 3곳에서 물을 채우지 않는 벼 재배 실험 진행 - 신시의 약 2.2헥타르 규모 농장에서는 3월에 벼씨를 뿌렸고, 제초제와 농작물 발육 촉진제인 '바이오 스티물런트'를 여러 차례 살포. 벼는 현재 20cm 정도 자랐으며, 수확은 9~10월경 예정. 3곳에서 총 9900kg의 수확량 목표
	<p>○ 디지털 지역 화폐, 전국 120개 시군구에서 유통... 행정 서비스에도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이나 IC 카드 등을 이용하여 쇼핑을 결제하는 디지털 지역 화폐 도입이 일본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음. 닛케이글로컬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디지털 지역 화폐가 유통되는 시군구는 12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 일반적인 디지털 지역 화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상공 단체, 금융 기관 등과 연계하여 발행. 스마트폰을 이용한 'PayPay' 등 전자 결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사용 지역(상점)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이 상품권을 전자화한 것과 유사 - 사용자는 전용 앱을 다운로드하여 현금을 충전하면 지정된 상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 가능. 2025년도에도 13개 시군구가 도입을 계획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홋카이도 루스츠무라, 숙박세 정액제로 전환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 루스츠무라는 2026년 4월부터 징수할 숙박세에 대해 단계적 정액제를 도입할 방침 확정. 숙박 사업자의 징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 4월부터 단계적 정액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홋카이도와 동일한 방식 채택 - 루스츠무라는 2024년부터 정액제와 정률제 모두를 검토. 2024년 12월, 정률제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도세 상당분을 도로 교부할 경우, 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설정한 조례가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루스츠무라에서도 숙박 요금의 2%를 축으로 하는 정률제 안 마련 - 16일 마을 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가결되면, 총무성과의 협의로 넘어갈 예정. 징수액은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숙박 요금이 1인 1박 2만엔 미만은 100엔, 2만엔 이상 5만엔 미만은 200엔, 5만엔 이상은 500엔으로 책정
	<p>○ 삿포로 시장, 수소 활용 협의회 설립으로 “삿포로가 모델 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삿포로시는 13일 홋카이도 내 금융기관, 에너지 회사, 토요타 자동차 등 약 40개 기업 및 단체와 수소 활용을 추진하는 '삿포로시 수소·재생에너지 추진 협의회' 설립. 아키토모 가쓰히로 시장은 “삿포로가 소규모 사업자나 가정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협의회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소 제조 및 공급망을 삿포로 시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 사업 회사 설립도 시야에 둠 - 협의회는 홋카이도 내의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제조하여 삿포로권으로 보내 활용하는 것을 상정. 수소 수송 시에는 운반하기 쉽도록 다른 화학 물질로 전환하거나 액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저비용 수송 방법 확립에 기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도쿄 에너지, 구마모토에서 바이오 가스 발전... 오니 및 식품 잔사로 전기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설비 공사 기업인 도쿄 에네시스는 13일 구마모토현에서 하수 오니 및 식품 잔사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가스 발전소 건설 발표.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생산된 전기는 주로 재생 에너지로 판매 - 총사업비 100억 엔을 투자하여 구마모토현 고시시에 건설. 인근 수도 시설 및 식품 공장에서 나오는 오니와 잔사를 발효시켜 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발전. 자가 소비분을 제외한 전기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를 통해 1킬로와트시당 35엔에 판매 -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및 잔사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도 설치. 액체 및 잔사를 빠르게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 대비 약품 사용량이 적어 공정 및 비용 절감 가능
	<p>○ 야모리, 지자체와 빈집 재생 확대... 하코다테시와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재생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야모리(도쿄 시부야)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 빈집 재생 사업을 확대. 최근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의 제3섹터, 하코다테 니시마치 리디자인과 공동 출자 회사 설립. 지역 빈집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급하는物件 수를 늘릴 예정 - 공동 출자 회사명은 '하코다테 빈집 재생 임대'. 도난 우미마치 신용금고(홋카이도 예사시마치)로부터 용자를 받아 빈집을 취득하고, 수리 후 임대物件으로 제공. 용자를 받는 데 있어 하코다테시로부터 출자를 받는 제3섹터의 신용 활용 - 야모리는物件 선정 및 수리, 관리 등을 담당하며, 입주 성공 보수와 관리료를 받음. 우선 연내에 10건 정도의物件 취득을 목표. 향후 공동 출자 회사에 지역 기업의 출자를 받거나 다른 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재생物件 수를 늘릴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야마구치현 하기시, 전체 학교 80%가 '이주자 자녀'... 노령화된 마을에 열정으로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지 유신의 거점이 된 야마구치현 하기시는 전후 8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 4만 명에 불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하기시는 현역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주자 유치에 주력. 지역 전체의 열정적인 유치가 성과를 거두는 지역도 나타남 - 하기시의 산간 지역인 사사나미 지구는 작년부터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관광객)가 나타나기 시작. 이는 지바현에서 2023년 말 이주한 사사세 토모히로·카오리 부부가 작년에 시작한 민박이 거점 역할 - 폐교 위기에 처했던 지역 초등학교는 전교생 13명 중 11명이 이주자 자녀. 이주 사포터인 히로타 요리아쓰는 “역시 지역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 노령화된 마을은 새로운 인력을 얻어 활기를 되찾기 시작
	<p>○ 도쿄도, 육아 지원 '양에서 질'로... 효과 검증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일 투표일을 맞는 도쿄도의회 선거는 육아 지원, 디지털화, 물가 인상 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쟁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내세운 '칠드런 퍼스트' 구호 아래 고교 수업료가 실질적으로 무상화되었고, 보육료 무상화도 9월부터 첫째 아이까지 확대 - 소득 제한 없이 18세까지의 자녀에게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하는 '018 서포트'도 시작. 이러한 지원책은 사업 단독으로 수백억 엔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양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평가 - 향후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양에서 질'로의 전환. 도쿄도는 지금까지 난자 동결이나 무통 분만 등 출산 선택지를 넓히는 지원책을 전국에 앞서 도입. 2025년부터는 방과 후 아동 보육에 독자적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를 보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미얀마	<p>○ 미얀마와 중국,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 코 코 르윈 미얀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6월 9일 마 지아 주미얀마 중국 대사와 네피도에서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검토도 진행 - 양측은 회담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미얀마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채굴, 생산 분야 투자 방안 논의. 탐사 및 시추 공정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동남아시아 원유 파이프라인 활용한 신규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 - 이번에 논의된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하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 회담에는 양국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와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베트남	<p>○ 베트남, EU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 밉 쩡 베트남 총리는 지난 6월 9일 프랑스 니스에서 안토니 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베트남-EU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 이번 회담에서 쩡 총리는 EU-베트남 투자 보호 협정 비준과 베트남 수산물 수출에 대한 'IUU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를 요청. EU 정상들은 양자 협력 우선순위 이행 가속화를 약속하며, 다변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평가 - EU 정상들은 베트남의 평화 및 안보 이슈에 대한 건설적 접근과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준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EU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며, 양측 관계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베트남 방문 의사 표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p>○ 베트남 총리, 프랑스와 관계 강화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 밉 쩡 베트남 총리는 2024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라르 라르셰 프랑스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개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프랑스의 제3회 유엔 해양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증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양측은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의회의 전문 위원회 및 친선 그룹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입법 분야에서의 연계를 심화하기로 합의. 쩡 총리는 프랑스 상원에 베트남 국회와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며, 지역 의회 간 교류 및 글로벌 의회 포럼에서의 공동 협력 강조 - 쩡 총리는 유럽 연합-베트남 투자 보호 협정의 조속한 비준과 제13차 베트남-프랑스 지방 분권 협력 회의 개최에 대한 지원을 요청. 양측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며, 국제법에 기반한 역내 평화, 안정 및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 재확인
캄보디아	<p>○ 캄보디아, UN 해양회의서 지속가능한 해양 개발 의지 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6월 9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UN 해양회의에서 해양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회복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 캄보디아가 최근 법안 개정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 - 훈 마넛 총리는 해양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 변화 영향 등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 강조. 국제 사회가 소규모 개발도상 연안국의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해양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 - 훈 마넛 총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 해양의 장기적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 국가 거버넌스와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 생태계 보호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 발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p>○ 태국,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전자 거래 개발청(ETDA)은 소비자 보호 및 책임 있는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발표. 태국 정부는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주요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감독하여, 품질이 낮은 제품을 규제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방침 -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은 거래량이 많거나 가입 규모가 큰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인 등록, 운영 보고서 제출, 판매자 데이터 검증 등을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판매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기관과의 협력, 제품 판매 전 사전 심사 및 광고 전 제품 표준 준수 확인 등의 조치 취해야 함 - 상기 법안 초안은 2025년 8월 발효될 예정이며, 전자 거래 개발청은 비표준 제품 및 광고 관리 규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 지난 3년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법을 시행하여 2,000개 이상의 플랫폼으로부터 사업 운영 정보를 제공받음
	<p>○ 태국, 시암AI와 자국 대형 언어 모델 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국립 과학 기술 개발청(NSTDA)이 태국의 AI 기업 시암AI와 협력하여 태국의 AI 역량 강화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태국형 대형 언어 모델(LLM) 개발에 착수. 시암AI는 태국의 맥락과 문화를 이해하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3억 바트(약 126억 원) 투자 - 양측은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태국 국립 과학 기술 개발청은 시암AI와 협력하여 심층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 - 태국형 대형 언어 모델은 시암AI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하여 3개월 내 완성될 예정. 개발 성공 시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가 될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p>○ 필리핀, 2025년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률 2위 달성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2025년 6월호'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7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5년 필리핀의 성장률은 5.3%로 예측되며, 이는 필리핀 정부가 설정한 2025년 목표치인 6~8%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세계은행은 필리핀이 2026년 5.4%, 2027년 5.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은 2026년 6.1%, 2027년 6.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내 최고 성장국이 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은 무역 장벽 강화, 정책 불확실성,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2027년에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정책 후퇴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이 제시
필리핀	<p>○ 필리핀, 3,300MW 규모 해상풍력 발전 경매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에너지부는 3,300 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을 공급하는 제5차 녹색 에너지 경매 프로그램(GEAP-5)을 개시. 이번 발전 용량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며, 글로벌 실적과 비용 효율성이 입증된 고정식 해상 풍력 기술이 중점 추진 대상 - 라파엘 로티야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은 GEAP-5를 통해 고정식 해상 풍력 기술을 우선 도입하여, 해상 풍력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힘. 필리핀 정부는 2028년 첫 발전 개시를 목표로 해상 풍력 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 중 - 로웨나 크리스티나 게바라 에너지부 차관은 기술 성숙도 향상에 따라 부유식 해상 풍력 기술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필리핀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 구성에서 신 재생 에너지 비중을 현재 22%에서 최소 35%까지 확대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 필리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감소세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5년 3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한 4억 9,800만 달러(약 6,77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 필리핀의 FDI 순유입은 2024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 -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 확장 계획을 재검토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2025년 1분기 FDI 순유입은 18억 달러(약 2조 4,5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1.1% 감소 - FDI 유입의 지속적인 감소는 필리핀 경제 성장 및 발전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필리핀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라오스	<p>○ 라오스, 시장 강화 및 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라이통 코마시트 라오스 산업상공부 장관은 2025년 6월 10일, 제9기 국회 제9차 정기 회의에서 시장 접근성 확대, 국내 생산 촉진,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산업상공부는 '한 지역 한 상품' 이니셔티브 추진과 함께, 국내 제품의 현대 유통망 통합 등 국산품 유통 확대 정책 시행 - 산업상공부는 국제 모범 사례를 반영한 상품 가격 책정 전략을 채택하고,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경제 정책을 수립. 전력 요금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준 미달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광산 운영의 환경 책임성 강화를 약속 - 산업상공부는 연료 공급업체 다변화, 국가 연료 비축 기금 설립,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연료 안보 전략 시행. 이 전략은 국가 연료 비용 절감, 에너지 회복력 강화, 장기적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